

미켈슨·디샴보·람...골프 스타들, 5월 초 한국 온다

LIV 골프 코리아 5월 2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개막
장유빈·케빈 나·앤서니 김 등도 출전...쿠팡플레이서 생중계

필 미켈슨, 브라이슨 디샴보(이상 미국), 온 램(스페인)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한국 팬들과 만난다.
LIV 골프 코리아(총상금 2500만달러)가 5월 2일부터 사흘간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72·7376야드)에서 열려 평소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월드 스타'들의 샷 대결을 한국 팬들이 직접 볼 기회가 생겼다.
2022년 6월 출범한 LIV 골프가 한국에서 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 대회에는 미켈슨, 디샴보, 램 이외에도 브룩스 켈카(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호아킨 니만(칠레), 폴 케이지(잉글랜드), 더스틴 존슨, 버바 왓슨(이상 미국),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등 이름값이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남자 골프의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2019년 제주도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이후 거의 6년 만이다.

미켈슨은 지난 3월 홍콩 대회에서 한국 대회에 대한 질문에 "2015년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에 참가한 것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그때도 코스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LIV 골프 대회를 위한 완벽한 장소이자 훌륭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 앤서니 김(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가 출전하고 한국 국적 선수 최초로 올해부터 LIV 골프에서 활약하는 장유빈도 오랜만에 한국 팬들과 재회한다.
장유빈은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휩쓸고, 올해는 LIV 골프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LIV 골프 대회에는 올해 장유빈 외에도 이달 초 미국 대회에 송영환이 나왔고, 이번 한국 대회에는 김민규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여파어마한 상금이다.
LIV 골프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

며,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달러, 단체전 우승 상금은 300만달러다.
한 선수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다 우승하면 475만달러, 한국 돈으로 68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
지난주 멕시코 대회 개인전 최하위 상금이 3만 3333달러(약 4800만원)였다.
LIV 골프는 컷 탈락 없이 3라운드 대회로 진행된다.
매 라운드에 모든 조가 동시에 출발하는 샷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코스 전체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등 여느 대회에 비해 자유분방한 분위기도 이색적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지드래곤, 아이브, 다이나믹 듀오, 거미, 키키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대회장에서 열린다.
스콧 오닐 LIV 골프 최고경영자(CEO)는 "첫 한국 대회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멋진 음악과 좋은 음식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로 꾸며질 것"이라며 "특히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한국에서 오래 대회를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IV 골프 코리아는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장 끝 아쉬운 준우승’ 김효주, LPGA 시즌 2승 재도전

5월 1일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사이고 마오·인튀닝 등 출격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한 톱자로 우승을 놓친 김효주(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2승을 다시 정조준한다.
김효주는 다음 달 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유타주 아이빈스의 블랙 데저트 리조트 골프코스(파72·662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LPGA 투어 시즌 10번째 대회인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은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 직후 열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비롯한 톱 랭커가 일부 결장한다.
세계랭킹 10위 이내의 선수는 인튀닝(중국·4위), 릴리아 부(미국·5위), 김효주(7위), 후루에 아야카(9위·일본)가 출전한다.
한국 선수 중엔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김효주에게 시선이 쏠린다.
김효주는 세브론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 4명의 선수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 간 끝에 준우승했다.
특히 올해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김효주와 사이고 마오(일본), 인튀닝, 에리아 쉼타누간(태국), 린디 덩컨(미국) 5명의 선수가 동타를 이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역사상 최대 인원의 연장전이 펼쳐졌다.
1차 연장전에서 버디 기회를 아깝게 놓쳐 파를 기록한 김효주는 5명 중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낸 사이고에게 트로피를 내준 뒤 이번 대회에 나선다.
3월 말 포드 챔피언십 우승과 세브론 챔피언십 준우승을 비롯해 올 시즌 4차례 톱10에 진입한 김효주는 CME 글로벌 포인트 1위(1013.125점)로 뛰어올랐고,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2위(59점)를 달리고 있다.
올해 앞서 9개 대회가 열린 LPGA 투어에선 매 대회 각기 다른 우승자가 나온 터라 이번 대회는



김효주에게 가장 먼저 시즌 2승 고지에 오를 기회다.
세브론 챔피언십 연장전 승리로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트로피로 장식한 지난해 신인왕 사이고도 내친김에 2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 김효주와 사이고를 비롯해 세브론 챔피언십 연장전을 벌인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다시 경쟁을 펼치는 점도 관심을 끈다.
김효주 외에 한국 선수는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톱10에 든 유해란(공동 6위)과 최혜진(공동 9위)

을 필두로 김아람, 양희영, 이미향,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임진희, 지은희, 신인 윤이나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1964년 리버사이드 레이디스 오픈 이후 모처럼 유타주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이기도 하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가 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선수 207명 V리그 문 두드린다

‘KOVO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드래프트’ 이스탄불서 개최

‘2025 KOVO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가 오는 5월 5일부터 10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올해 V리그의 문을 두드린 선수는 총 207명(남자 135명, 여자 72명)이다.
이중 구단 평가를 통과한 남자부 39명, 여자부 37명 등 76명과 2024-2025 시즌을 완주한 선수 9명(남자부 3명, 여자부 6명) 등 85명이 최종 시험대에 오른다.
여자부에서는 독일1부리그 우승을 경험한 빅토리아 데미도바(아웃사이드 히터·러시아), 반야사비치(아포짓스파이커·세르비아), 24-25 루마니아 수퍼컵 MVP 이우나 자도로즈나(아포짓스파이커·루마니아) 등이 트라이아웃 무대에 선다.
V리그 경험자들도 재도전한다. AI페퍼스에서 뛰었던 바르바라 자비치(아포짓스파이커·크로아티아)가 이름을 올리면서 페퍼스와 재계약을 하게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AI페퍼스는 2024-2025 시즌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자비치를 전체 1순위 지명권으로 뽑았다. 자비치는 191CM의 큰 키로 이탈리아와 헝가리, 스위스 등 다양한 리그에서 활동해왔으며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로도 참여했다.
다만 부상을 이유로 두 경기만에 페퍼스에서 방출돼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시즌 흥광생명에서 활약했던 월로우 존슨(아포짓스파이커·미국), 한국계 미국인 레베카 라샘(아포짓스파이커·미국) 등도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에서는 지난시즌 우라카드 지명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시즌 완주를 하지 못한 마이클 아히(아포짓스파이커·네덜란드), LG손해보험(현KB손해보험)에서 뛴 토마스 에드가(아포짓스파이커·호주) 등도 도전한다.
남자부 외국인선수 1년차 연봉은 40만불이며 2



2024-2025시즌 AI페퍼스 1순위로 지명 됐지만 부상으로 교체된 자비츠.

년차부터는 55만불이다. 여자부 외국인선수는 1년차 25만불, 2년차부터 30만불을 받는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활약을 보인 선수들은 기존 소속팀에 우선 지명권이 부여된다. GS칼텍스와 지난시즌 함께했던 지젤 실바는 이미 재계약을 마쳤다.
구단은 드래프트 하루 전인 5월 8일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재계약 여부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